



음악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무대 시청각예술

„PRESTO (빠르게) 126/4“

음악: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바가텔 피아노작품 126, 제 4, Presto (빠르게)(1824) 는 파울 코멘 (2003) 이 베토벤-하우스의 합머피아노로 연주한 음악을 녹음한 작품인데, 이 합머피아노는 콘라드 그라프가 1824 년에 제조했다 (홈델가족이 장기 대여한 피아노).

제작: 요한나 돔보이스 (초안, 감독/연출, 예술면 지도), 울리 레히너 (시각효과 지도), 플로리안 돔보이스 (아이디어, 초안, 계획지도), 마르틴 수트로프 (초안). 베르티고 시스템 회사와 rmh - 뉴 미디어 회사가 협력하여 베토벤-하우스를 위해 제작한 작품이다.
미디어코뮤니케이션 프라우엔호프 연구소, 상 아우구스틴 (2004).

공연시간: 4 분

일반적인 언어관용상으로는 오직 „소작품“으로 의미되지만, 베토벤의 소작품은 작은 부수작품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는 작품이다.

템포표시 „Presto (빠르게)“ 바가텔 하-몰 126 제 4 작품은 아주 짧은 작품의 특성을 보이는데, 정당히 평가해서 현대작품으로 간주된다. 베토벤이 1824 년초에 그의 제 3 바가텔-연속작품안에 작곡한 작품이다. 베토벤 자신이 이 작품을 „6 바가텔작품들중... 오직 피아노만을 위한 작품이고, 내가 작곡한 이러한 양식의 작품들중 가장 우수한 작품이다“ 라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들을 수 있는 작품은 베토벤 하우스에 있는 합머피아노로 연주한 작품이고, 합머피아노는 이 작품이 작곡된 해에 제조된 피아노인데 베토벤의 이상적인 음향을 반향하고 있다.

시청각 예술 „Presto (빠르게)126/4“ 는 음악의 형태부분들, 음향강도와 음향스펙트럼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삼차원적인 화면에 표현된다. 시각면의 표현요소들 색소, 점들과 움직임은 음악 구조면과 디지털 정보유동에 연결시켜져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음향의 미학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면이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아주 서정적이고 친밀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음악시청각 예술의 요소 „Presto (빠르게)126/4“:

1. 색소

주파수분석의 도움으로 음악작품을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음향스펙트럼이 4 주파수영역으로 분리된다. 이 4 음향영역들이 색소로 움직이며 형성된 색소부분들로 표현된다: 푸른 원모양, 붉은 사각형, 초록색의 끈들, 노란 삼각형들. 이 주파수강도는 (음향강도) 색소부분의 음향반출속도와 양에 영향을 끼친다. 삼차원적인 화면은 색소부분들이 뒷쪽으로 사라지면서 형성된다.

미디어플레이어에 응용된 주파수분석 방식과 시청각예술은 처음으로 가상의 3D-공간으로 중개된다.

2. 상호작용

음향미술작품 제작에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색소들은 부속된 상호작용기계를 통해 수평적, 수직적으로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위치지시장치-푸른 원모양; 조이스틱-붉은 사각형; 줄들-초록색의 끈들; 접촉삼각형-노란 삼각형들).

방문객-상호작용을 통해서 각 공연중에 각 개개인의 특이한 화면양탄자가 정보유동의 시청각예술로서 새로운 작품이 창작된다.

3. 점들

검은 점들과 점들의 유동방향들은 음악작품의 음악형태를 형성, 묘사한다. 이 음악형태는 분위기면에서 아주 상이한 두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결합한다: **ABAB**

A 행진곡같은 성격 수평적인 움직임

B 활력이 있는 성격 수직적인 움직임

악보에 특히 힘차고, 강조된 부분들은 (스포르자티) 점들의 부피가 늘어나는 형태로 묘사된다.